

전주만의 장애인정책 혁신 '앞장'

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장애인정책 변화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 전략' 특강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정책 혁신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전주시청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정책 변화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장애인 정책 특강을 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주시청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정책 변화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장애인 정책 특강을 했다.

김미옥 교수는 '장애인정책 변화에 따른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미래사회의 기회와 위험요소 조망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와 맥락들 △최근 주요 정책 추진 현황 △전주시만의 고유성 및 혁신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장애인정책 방향 제시 등을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전주시가 장애인정책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기관 내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계획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

가 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이 앞장서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의 전주시 장애인정책에 잘 녹여내 전주시민의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며, 현재 △이행계획 수립 △자립지원TF팀 구성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등 장애인의 온전한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노송동마을계획수립단은 지난 13일 노송동마을계획수립단 관계자와 김윤덕 국회의원,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이병도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송동 천사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전주 '노송동 천사카페' 개소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4층에 조성... 마을 주민들 운영

전주시 노송동 천사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천사카페가 문을 열었다.

전주 노송동마을계획수립단(단장 김성국)은 지난 13일 노송동마을 계획수립단 관계자와 김윤덕 국회의원,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 이병도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송동 천사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천사카페 개소를 축하하는 시 낭송과 떡 케이크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노송동 천사카페'는 노송동 천사마을희망문화센터(완산구 문화3길 14-3) 4층에 설치됐으며, 노송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바리스타 2명이 근무하게 된다.

노송동마을계획수립단은 향후에도 마을주민 대상 바리스타 교육

을 통해 주민주도하에 카페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는 △1층 경로당과 헬스장, 대한시조협회 공간 △2층 자활기업 △3층 자활사업단 △4층 천사카페, 소회의실 등 주민소통공간 및 자활복합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천사카페는 시와 노송동마을계획수립단의 사용승인협약을 통해 마을계획수립단 주관으로 운영된다.

김성국 노송동마을계획수립단장은 "노송동 천사카페를 통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커피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며, 열굴 없는 천사의 기부정신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직사회 탄소중립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전직원 대상 총 3회 실시... 기후위기 대응 방안 · 탄소중립 중요성 이해 · 모색 위해

전주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주시 직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2050 탄소중립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지속되는 등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첫 교육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소장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2차 교육에서는 탄소중립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과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 방안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4일 열리는 3차 교육에서는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대표가 업무추진에 도입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에 적합한 건축·토목 기술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동종 mRNA 백신 접종' 항체 역가 가장 높아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연구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반응 확인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 메디체크연구소 내의 소장(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연구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항체(anti-S-RBD IgG) 검사에 동위한 건협 직원 1,095명을 대상으로 동종 또는 이종 백신 2회 접종 후 항체 생성 및 역가를 확인하고, 항체 역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했다.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얀센(Janssen), mRNA 백신인 화이자(Pfizer-BioNTech) 또는 모더나(Moderna) 백신을 접종했고, 검사는

백신 접종 전, 1차 백신 접종 1개월 후, 2차 백신 접종 직후와 1개월 및 3개월 후까지 총 5회 진행했다. SARS-CoV-2 항체 검사는 애보트사의 화학 발광 미세입자 면역분석법 SARS-CoV-2 IgG II Quant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1차 백신 접종 1개월 후 SARS-CoV-2 항체 검사 결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접종자는 23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21명, 화이자 1명, 모더나 1명이었다.

항체(anti-S-RBD IgG) 역가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한 사람보다

mRNA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서 높았다.

2차 백신 접종 1개월 후 SARS-CoV-2 항체 검사 결과, 동종의 mRNA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서 항체 역가가 가장 높았으며, 교차 접종(mRNA 백신 +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동종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다.

동종의 mRNA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서 1차 접종 후 보다 약 10배 높았다. 이는 3개월 후 3분의 1로 감소했다.

항체 역가는 여성에서, mRNA 백신

을 접종한 경우,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내의 메디체크 연구소장은 "백신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백신 접종자의 SARS-CoV-2 항체 역가를 측정하는 진단검사는 백신 효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S 단백질의 RBD(S-RBD) IgG 항체의 평가는 중화항체 역가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진단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2022. 4. 27. 온라인)에서 구연 발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간담회 가져

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개최

전주시가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2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16명과 보다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 통합돌봄과·장애인복지과·치매안심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주시약사회,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시 물리치료사협회, 한국주거복지협동조합,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북영양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형 통합돌

봄 2022' 사업에 대한 안내에 이어, 통합돌봄 서비스 현황 및 분야별 제공기준에 대한 설명 등 기관실무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시는 이 자리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와의 간담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보건·의료 △복지·돌봄 △영양 △주거 △일상생활 △일자리 등 6개 분야의 54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건강·일상생활 등의 실제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신규서비스 발굴 및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덕진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16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90여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학교매점, 문구점, 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와 분식점, 제과점 등 식품 조리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생활방역 관련 분식점 등 조리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위생마스크, 앞치마 착용 여부 확인 및 착용 독려

캠페인'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칼로리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 판매업소 제도를 홍보하면서 우수 판매업소 지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관리 등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정돈 당부 등 현장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종사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유신용 사진작가 초청 진행

전주지역 특성화도서관에서 사진작가로부터 스마트폰 여행사진 촬영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확산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에서 유신용 사진작가를 초청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여행사진 촬영 강연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유신용 작가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 방법과 사진 촬영 방법을 배우고, 3개 특성화도서관을 배경으로 현장실습 및 촬영을 해보며 직접 찍은 사진을 SNS에 포스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유신용 작가는 한국사진문화협회 9대 회장과 전북웨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완주군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에서 다수의 스마트폰 사진 촬영 관련 강좌를 진행



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촬영 교육에 앞장서었다.

강연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063-714-352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714-352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앞으로도 특성화도서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활력을 주고 도서관과 책의 도시 전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